생 글 작 은 도 서 관

#서울 도봉구 #자산취득비 지원

생글 작은도서관은 즐거운 **책 놀이터**입니다.
생글 작은도서관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사랑방**입니다.
생글 작은도서관은 내 집처럼 **편하고 아늑한 곳**입니다.
생글 작은도서관은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생글 작은도서관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생글 작은도서관은 **나눔과 소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생글 작은도서관의 '생글'은 **생글생글 웃는다**는 의미입니다.
생글 작은도서관을 찾는 모두가 오늘도 함께 생글생글 웃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 한 생글 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도서관 활성화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 회의를 통해 긴급지원119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선정하고 물품에 대한 정보를 여기저기서 찾아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빔 프로젝터, 노트북, 전화기, 복합기가 오래되어 고장이 나고 성능이 저하되어 행사시 지역단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던 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지원119가 큰 도움이 되었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를 통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한 후, 프로그램의 질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빔 프로젝터와 노트북은 시청각 교육 프로그램, 영화보기, 기타 프로젝트 등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복합기가 생겨 도서바코드 라벨 출력과 컬러홍보지 팩스 등 업무가 효율적이고 능률화 되었습니다. 코팅기는 보드게임 카드 등 학습자료를 코팅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의 강의내용을 알차고 흥미 있게 진행할 수 있었고 구입 물품을 활용하여 학습 자료나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임대해야 가능했던 프로그램 진행을 자체 해결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수시로 아이들에게 원하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읽기만으로는 흥미를 가질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방학동안 영화보기를 통해 도서관 방문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어른들은 저녁시간에 마실 나가듯 편안하게 왔습니다. 시간의 제약 없이 여유 있게 좋은 영화를 보고 소감을 나눌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구입한 물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문화 공간의 역할을 통해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부족으로 교체된 물품의 부대물품의 사양이 낮아 효과를 최대치로 활용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지원의 기회가 또 있다면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오래되고 부족한 서가 교체와 시설수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여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생글 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생글은 돌봄 및 휴식의 공간, 문화 공간, 커뮤니티 형성의 공간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인근에 위치한 지역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두 곳에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거리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하여 재미나고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 워크샵을 통해 2018년 사업계획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상프로그램 연간계획 운영위 역할분담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경제교실', '마을에서 사라져가는 우리말 알아보기', ' 그림책으로 낭독하기', '분기별 어린이 영화보기', '천연화장품 새로운 아이템 교육'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봉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봉환경교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뜻 모아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훈훈한 사람들에게 건투를 빕니다.